

# 자원순환·온실가스 저감·일자리 창출 돕는 재사용 활성화, 시민 맞춤형으로 추진 필요

## 재사용의 현황·효과 분석 토대로 미래 정책방안 도출이 이 연구 목적

인류학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는 친환경적이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마을 공동체를 방문한 뒤 라다크 지역을 우리 인류의 ‘오래된 미래’라고 불렀다. 나는 재사용(reuse)도 같은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버려준 황학동 시장과 한국 전쟁 이후의 이미지, 재활용 비슷한 무엇으로 불리던 동네 재활용센터로 파편화된 재사용, 중고거래가 미래의 경제 성장과 순환도시(circular city)라는 혁신성으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연구는 재사용의 효과를 서울시 재사용 부문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시민과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2020년 12월 말 기준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약 1명이 이용하는 ‘국민 앱’ 당근마켓으로 대표되는 중고 직거래 시장의 급성장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이동 제한, 기후 위기에 관한 관심 증대의 결과이며, 10년 후에도 중고물품의 자원화인 재사용은 신상품 거래 시장을 잠식하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한한 자원의 이용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한 번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최대한 우리 사회체계 내에서 순환하도록 체질을 전환하는 순환경제, 순환도시로의 전환은 미룰 수 없는 혁신 과제이다. 재사용은 별도의 에너지와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이미 만들어진 제품과 서비스를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어 자원순환의 우선순위에서 최상위에 속하는 활동이다. 이렇듯 유통산업이자 전자통신플랫폼 산업 측면에서, 자원순환 관리와 도시정책의 측면에서 중요한 재사용에 관해 ‘중요하다’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우리에게겐 부족하다. 이 연구는 서울시민과 관련 업계에 대한 설문조사, 실태조사,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재사용의 현황과 효과, 미래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설문결과, 시민 절반 “재사용 활동 참여 경험” … 71% “향후 참여의사”

권역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출한 서울시민 1,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왜 재사용을 새로운 문화현상이라 부르는지 알 수 있다. 가장 적극적인 재사용 활동인 판매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서울시민이 평균 45%에 달했으며, 폐의류 수거함을 이용한 배출, 수리·수선, 기증·기부, 중고용품 구입 모두 시민 2명 중 1명이 이미 실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도 모르거나 불편하기 때문이지 수리·수선을 통한 제품 사용 연장, 비영리단체 기부 등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을 나타냈다. 구입과 판매는 온라인 직거래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불안함, 거래의 부담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재사용 거래나 나눔, 기부에 사용할만한 물품으로는 의류, 잡화, 가전, 소형 가구 등을 보유한 시민이 많고, 향후 다양한 재사용 활동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평균 21% 증가한 71.2%에 달해 향후 재사용 분야의 발전 가능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사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공에서 운영, 관리하는 재사용 매장이거나 수거함 등을 보다 가까이에서 편리하고 쉽게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치구 재활용센터를 개선한 리엔업사이클플라자가 문을 연다면 재사용 매장, 수리·수선 교육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민간 시장을 통한 직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중고거래·나눔 등 재사용으로 서울시 가구당 연 6kg 자원순환 이바지

비영리 재사용매장, 자치구 재활용센터, 서울시 공동주택에 설치된 폐의류 수거함 관리업체 등 3가지 재사용 업계의 재사용 자원화 경로와 물질흐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영리 재사용매장의 단위 자원화율(재사용 상품 판매와 재활용 배출)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수집량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시민 설문조사의 재사용 가능 물품 보유량을 생각할 때 의류, 잡화, 소형 가구와 유아용품, 레포츠용품의 재사용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공 재활용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의류, 잡화에 대한 재활용 체계를 마련, 지원하여 재사용 분야의 성장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 폐의류 수거함 관리업체는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재사용 판매, 재활용 제품 소재 제공 등으로 긍정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단계이며, 정책 지원을 통해 국내 재사용 시장의 동반 성장의 한

축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크다. 주로 가구와 가전제품을 다루는 자치구 재활용센터는 선별 효율이 높아 자원순환 효과는 참여가구당 연 3.4kg이다. 재활용센터와 비영리 재사용가게의 재사용 판매, 재활용 처리를 합하면 서울시 가구당 연 6kg 정도 자원순환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각 대체 효과만 반영할 때 재사용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는 연간 5,055톤CO<sub>2</sub>에 달하며, 생산, 소비 대체 효과까지 고려하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배출 수거·재사용 거래 활성화 행기고 자원순환 연계·제도개선 등 필요

###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추진과제 1. 재사용 우선 관리 단계별 활성화 방안

- ① 재사용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재사용 매장 설치·운영 확대, 재사용 시장(품목, 서비스 등) 확대, 공공 재사용 매장의 품목 매입가격 공개, 거래 투명성 제고
- ② 쉽고 편한 배출을 위한 수거 거점 확대, 다양한 수거 체계 확충, 재사용 가능 품목 처리방안에 대한 정보 제공, 재사용(역회수) 보관 물류 확대 지원
- ③ 시민 수요가 많은 수리·수선 서비스 공공에서 지원
- ④ 수리·수선 교육 및 장비 무료 대여

#### 추진과제 2. 자원순환 활동과 연계를 통한 재사용 활성화

- ① 재사용 연계한 재활용 활성화
- ② 폐기 최소화, 안전한 처리, 재활용 촉진

#### 추진과제 3. 제도개선과 거버넌스 구축

- ① 재사용 법제 개선
- ② 재사용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 ③ 재사용 홍보, 문화 확산 - 재사용의 이름을 찾아주세요

#### 추진과제 4. 재사용 활성화 그린뉴딜 사업 제안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를 재사용 우선 관리 단계별 활성화, 자원순환 활동과 연계를 통한 재사용 활성화, 제도개선과 거버넌스 구축, 재사용 활성화 그린뉴딜 방향과 사업 제안 순으로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수리·수선 교육이나 장비 대여 정책을 지속하고 기존 재활용 중심 제도를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재사용 품목 우선 공공 구매 등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재사용은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었지만, 용어로서의

‘재사용’은 실제 사용하는 용어인 ‘중고’, ‘리세일’에 비해 낮설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다는 한계가 있다. 더 긍정적인 명칭을 개발하여 재사용 문화를 활성화하는 문화 캠페인도 추진하고, 재사용 업계와 공공기관 간 거버넌스 구축과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그린뉴딜 사업에서 재사용, 자원순환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더 적극적인 재사용 분야 그린뉴딜 투자가 필요하다.

